

[일대일로 맺어진 우리 가족] 양육하며 하나님 사랑 더욱 새로와

2001 / 페이지수: 3

이장로 장로는 올해로 10년째 약 30쌍의 부부와 일대일양육을 했다. 이들 중 어느 한 커플도 중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 무사히 양육을 마쳤다. 그 비밀은 바로 오리엔테이션에 있다.

‘일대일 쉬운 게 아니죠’

우선 처음 양육을 받겠노라고 만난 동반자들에게 ‘일대일은 무척 어려운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여섯 달 동안 약속 지키는 것과 각자의 삶을 오픈해야 하는 것이라고 일러준다. 그리고 나면 우선 일대일을 통해 변화될 목표를 먼저 정할 것과 숙제를 철저히 해올 것을 강조한다. 이쯤 되면 동반자들은 약간 의기소침해진다. 이때 아직까지 한 사람도 중도탈락한 사람은 없었노라고 격려한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선택권을 준다. 그들이 양육을 받을 마음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이 장로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확실한 약속을 하는 것이 좋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 장로는 일대일 교재의 과정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순종’, ‘사역’을 가장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이며, 성도는 누구나 자기 직장과 가정 등의 현장에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대일의 과정이 끝나면 봉사할 부서를 정해준다. 지금도 사역의 현장에 많은 동반자들이 사역자로 서 있다.

이 장로는 강조한다. 양육자가 은혜 받아야 한다고. 이 장로에게 양육기간은 가장 은혜로운 기간이다. 양육하는 매시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양육한 적이 없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 눈물을 흘린다. 새록새록 새로운 예수님의 사랑에 겨워서 눈물 흘린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귀한 시간이다.

이장로 장로에게서 양육을 받은 남상길 집사는 순 온누리교회 산이다. 90년 여름 처음 온누리교회를 찾아와서 새 신자 과정을 마치고 나니 하 목사님 안식년을 갖는다는 바람에 아무것도 모른 채 세례를 받았다. 당시 평신도였던 이장로 장로를 만나 3팀이 양육을 받았을 때도 그저 해야 되는 건가보다 하고 했다.

‘낼 오죠?’ 거절할 수 없는 질문

남 집사에게는 그래도 양육이 좋지만은 않았다. 다른 두 팀은 신앙생활도 꽤 한 것 같고 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늘 상 피하고 싶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자신을 붙들어 두는 것은 이장로 장로의 열심이었다. 삶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이 장로가 그토록 열심히 양육하는 것을 보고서 이 장로가 토요일마다 전화를 걸어 “낼(내일) 오죠?”라고 물으면 그 초대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 장로를 보며 남 집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보다”고 생각했다.

교재를 가지고 이 장로가 열심히 가르쳤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장로님을 만나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참석했다.

그런 남 집사에게 문제가 생겼다. 구원의 확신에서 ‘아니오’가 너무 많았다. 이 장로가 잘 설명해 주어도 납득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양육을 받고서도 양육자반은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집사안수를 받게 되면서 양육자반을 해야만 했다. 양육자반을 마치고 처음 만난 사람이 한창학 집사다. 사실 한 집사는 나이도 한살 많고 가르칠 필요가 없을 만큼 지식도 많았다. 누가 양육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 갔다. 그저 “오늘을 ‘시험’ 차례입니다”라고 말할지언정, 사실 이장로 장로에게 양육을 받을 때 보다 지식적으로는 더 많이 배웠다.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이다.

남 집사는 말한다. “제가 이 장로님에게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 구나’를 배웠다면 한 집사님에게는 순종과 충성을 배웠노라”고. 남 집사는 동반자에게 늘 말한다. “당신은 날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남 집사는 자신의 믿음의 모델로 이장로 장로를 삼는다.

일대일, 동참한 자만이 아는 축복

한창학 집사는 96년경에 남상길 집사와 일대일을 하게 되었다. 다섯 번 사업에 실패하고 삶이 파란만장했던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사람이었다. 그리 특별할 것 없이 순직한 삶을 살아온 남 집사를 보면서 한 집사는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는 기간이었다. 단순하면서도 힘이 있는 남 집사의 삶 때문이었다.

다양한 신앙훈련을 받아온 자신이었지만 일대일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았다.

양육을 받고 박영우 형제와 일대일을 하게 되었다. 신앙적인 갖가지 체험을 하면서 살아온 자신과 역시 좀 다른 박영우 성도는 체험이 없이 아내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었다. 함께 일대일 하는 동안 그가 새벽기도를 시작했다. 일대일을 하는 동안 많은 문제도 해결 되었다. 한창학 집사는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베이스를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일대일은 동참한 사람만이 아는 축복이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일대일 과정이 은혜

박영우 성도는 일대일을 다소간 귀찮게 여겼다. 더운 여름, 집에서 일대일을 하면 아내와 함께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힘든 얘기도 할 수 없었다. 아마 아내도 자매의 속사정을 양육자에게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불편한 관계로 5~6번 만나다 보니 어느새 인가 모르게 속내를 만하고 있었다.

양육을 받는 동안 IMF가 터져 직장일로 힘들었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도 마음만은 평안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도 말이다.

점잖은 한 집사가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하면 즐리곤 했다. 그러면 한 집사는 갑자기 찬양을 하고 손을 붙잡고 중보기도를 했다. 찬양을 할 때면 음을 잘 잡지 못해 헤매기도 했다. 그것이 큰 배움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던 박성도가 양육을 시작했다. 나이가 한참 어린 안광준 형제였다. 자신은 성실하지 못했지만 양육만은 잘 해보리라 결심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직장일이 너무 바빠서 약속을 자꾸만 여기는 게 아닌가. 처음엔 너무 속이 상했다. 약속은 자꾸만 어긋나니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양육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팠다. 그러다가도 지친 몸을 이끌고 밤

9시가 넘어서 양육을 받겠다고 찾아오는 안광준 형제를 보면 안쓰럽곤 했다. 때로는 양육을 포기할까도 생각했다. 그때마다 아내는 양육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충고하곤 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렇게 열심을 내고 했던 그 과정이나 한 집사님께 배우던 시간들 자체가 은혜였다. 이때만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순 예배를 드리다가 나눔을 마저 다 하지 못하고 얘기를 마치는 형제를 보면 그 형제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

안광준 형제는 언제나 바빠서 1년이란 기간동안 양육해준 박영우 성도가 언제나 고맙다. 항상 바쁜 회사 일에 회사에서 업무능력평가니 하면서 시험이 매주 있어서 여간 힘든 일이 약속을 항상 지키지 못했는데도 말이다.

그래도 양육을 하게 된다면 학교 다닐 때 성문종합영어를 정복하듯이 양육과정을 하지 않고 성도간의 충만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양육하고 싶다고 말한다.

*** 출처 : 큐티와일대일**